

전기차 선도도시 영광서 전기차 못탄다?

‘60km 이하 도로서만 운행’ 규정에 영광~법성간 진입 불가능

영광군민 공청회 “관련법 개정” 한목소리

지난 2009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저속 전기 자동차에 대한 특별 규정’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최고속도 60km 이하인 도로에서만 저속 전기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광군은 최근 한전 문화회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조정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론적, 우마차도 다니는 도로에 전기자동차 다니지 못하는 법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며 “저속 전기차를 60

km 이하의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은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규정속도 변경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기자동차 구매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96%가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전기 자동차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높은 구매가격(41%) ▲주행거리에 대한 개선(27%)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의 기술력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35조 3의 1

항’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서만 저속 전기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국도 22호선 영광~법성 구간에서 전기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영광~법성간 도로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인 4차선 도로로 영광군의 주요 기간 도로다. 그러나 저속 전기 자동차를 최고 속도 60km 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에 저속 전기자동차의 영광~법성간 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저속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영규정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운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법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전 세계가 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관계 법규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구내·근린형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군은 전기 자동차의 실증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해 35대의 전기차를 실증 운행하고 있다. 또 급속 충전기 3대와 완속 충전기 38대 등 41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최근 막을 내린 제14회 함평나비대축제. 28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을 줬다. <함평군 제공>

경제효과 574억... 함평나비대축제 잘 치렀다

관광객 28만2천명 입장료 수입만 7억2000만원

최근 막을 내린 ‘제14회 함평나비대축제’에 28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총 7억2000여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또 함평천지 한우와 나르다, 음식점, 체험장, 추억의 장터, 할머니 장터 등 행사 현장에서 군민 등이 직접 운영한 농·특·축산물 판매장의 매출은 지난해 12억원 보다 2억원 가량 늘어난 14억여 원을 기록했다.

군은 지난 축제에 비해 공휴일이 2일 적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열린 성과라는 점에서 나비축제가 지향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74억원, 2208명 고용창출에 기여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확대 실시한 야외 나비날리기

행사는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해 살아있는 나비를 날리면서 호평을 받았다.

‘찰갯 축제’를 즐겨라’ 프로그램은 축제장 주요 장소를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선물을 증정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농특축산물 판매장도 지난해보다 10개 업체가 더 참여한데다 큰 매출 신장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됐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무논점포 재배기술 연시회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에서 쌀 전업농가와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 무논점포 재배기술 연시회를 가졌다. 무논점포는 밭새 피종과 못자리 설치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관행농법에 비해 노동력 35%, 생산비 17%를 절감할 수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해남군수협은 “2012년 물김 위판액이 전년에 비해 61억원이 증가한 46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은 위판액 증가로 21억8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해남은 물김 생산 초기에 갯방과 이상기온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꾸준한 어장 관리 등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돼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일본 ㈜한국노리자원과 연간 6만속(9억원 상당)의 조미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에는 대미 수출계약까지 체결한다.

한편 해남지역은 1238여가에서 7507톤의 김을 양식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물김 위판액 464억 사상 최대

수협 21억8000만원 수익

해남물김 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남군수협은 “2012년 물김 위판액이 전년에 비해 61억원이 증가한 46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은 위판액 증가로 21억8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해남은 물김 생산 초기에 갯방과 이상기온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꾸준한 어장 관리 등 품질 좋은 김을 생산하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돼 최고 위판액을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일본 ㈜한국노리자원과 연간 6만속(9억원 상당)의 조미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달에는 대미 수출계약까지 체결한다.

한편 해남지역은 1238여가에서 7507톤의 김을 양식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군이 청백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해남군은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자체 ‘청백 공무원상’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첫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해남군 ‘청백 공무원’ 선발합니다

해남군은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자체 ‘청백 공무원상’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첫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군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중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뚜렷하며, 공생활이 건전하고 공직사회에 기여한 자를 부서장 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내부 행정망을 통한 직원 공개검증 등 사전심사를 거쳐 해남군 공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백 공무원상’은 매년 1명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수여와 함께 매월 청백 공무원 수당(5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대상자 추천은 오는 31일까지 군 소속 부서장 또는 주민, 단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접수방법은 우편·전자메일·방문 접수 등이 가능하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천년의 기다림’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3억 지원

정읍시가 2012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천년의 기다림’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시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스토리텔링화해 정읍고에서 전북 과학대에 이르는 1.2km의 ‘정읍사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3년부터 추진하는 ‘정읍사공원 정비 3단계 사업’(106억)과 ‘정읍사 오솔길’ 사업과 연계해 백제시대의 거리를 재현하는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특화된 걷고 싶은 거리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공공디자인 포럼 위원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 및 자문과 협의를 거쳐 설계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행상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백제여인의 남편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애절한 기다림을 담은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내용을 소재로 해 부부와 가족사랑을 테마로 한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청정농산물 서울서 인기몰이

서울시 주민들이 지난 10~12일 서울 강서농협 하나로마트앞 광장에서 열린 순창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찾아 구매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도 세출 구조조정 나선다

120개 사업 민간평가...‘미흡’땀 지원 중단

전북도가 주요 사업을 민간 평가에 맡겨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북도는 “7월 말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민간평가를 시행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간평가단의 결과가 나오면 중목·유사사업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속사업은 중단 조치하고, 소모·행사 예산은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성과 분석·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120개 사업이다.

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종합평가단’이 서면·면접평가와 모바일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미흡’ 판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이상 판정 사업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해 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별적으로 10% 이상 세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작목반’ 최우수 선정

남원시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작목반’이 2년 연속 최우수단위로 선정됐다.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반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원예전문 생산단지 운영실태 및 시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단위로 선정돼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물류비 10%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바래봉 작목반은 전국 15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생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수출농업 육성 등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한 남원 파프리카는 현재 37 농가가 18.4ha에서 연간 2500t을 생산, 8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수출로 40억원 이상 외화를 획득하는 등 수출 효과 작목이다.

남원시 원예특작 김영선 탐당은 “전국 최고의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단지 첨단화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에 집중투자, 2020년까지 재배면적을 3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간 150억원이상 소득을 올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군산 먼바다 6곳서 계절별 바닷물 흐름 관측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사무소 국립 해양조사원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소장 성노선)는 군산부근 십이동파도 서쪽으로 먼 바다까지 계절별 바닷물의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관측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황해 해류의 길목으로 추정되는 군산앞 먼 바다 6개 지점에 해저 유속관측 장비를 투입, 장기간의 관측을 통해 서해 중부 연안의 계절별 해류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립 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안정성이 보장된 해저 관측장비 설치기구를 자체 개발해 투입한다. 또 군산대 해양과학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해 해양관측기술 교류를 통해 해양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해 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서해 중부연안의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이동경로 파악 및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실시해 해양관측기술 교류를 통해 해양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해 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는 “서해 중부연안의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이동경로 파악 및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전주 시립국악단 내일 ‘청소년 협연의 밤’

전주 시립국악단은 1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실에서 제177회 정기연주회로 ‘청소년 협연의 밤’을 연다.

청소년 협연은 해금협주곡 ‘지영희류’를 전주예술고 3학년 오경철·김은조 학생이 꾸렸다. 피리협주곡 ‘서용석류’는 전주에고

조광호(3년) 학생이 피리를, 한국전통문화고 김중현(3년) 학생이 대금을 연주한다. 또 진도서고 교 김철환(3년) 학생의 대금협주곡 ‘원장현류’와 한국전통문화고 박진원(3년) 학생의 아쟁협주곡 ‘금당’을 감상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21일부터 해양오염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1일부터 6월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해상 공사현장 폐기물 무단배출 ▲항만·임해시설 내 폐기물 무단방출 ▲비산먼지 발생 방지막 설치 여부 ▲선박 해체

작업장 시설의 적정성 등이다.

해경은 항공기, 해·육상 단속반을 활용해 상습적인 오염행위와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틀러 버리는 행위 단속을 위해 야간·새벽에도 단속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원불교 정읍교당 범위승급·법호 수여식

원불교 정읍교당은 13일 대각전에서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해 많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위승급 및 법호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주관관(72·주환) 법사 외 5명의 교도가 범위 승급을, 박인명(64·양민)교도 등 15명이 법호

를 받았다.

한편 범위 승급은 교도의 공부 정도를 사정해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법계를 승진케 하고, 법호 수여는 재가·출가간에 공부와 사업에 큰 실적을 쌓은 숙덕 교도에 게 수여하는 별호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요촌어린이놀이터 ‘친환경 안심’ 장려상

김제시 요촌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가 최근 환경부 주관의 ‘친환경 안심 어린이 놀이터 공모전’에서 지자체 실의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노후된 요촌 어린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친환경

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놀이 공간인 ‘요요 놀이터’로 새롭게 변모시켰다.

지역주민들 역시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직접 자연 친화적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